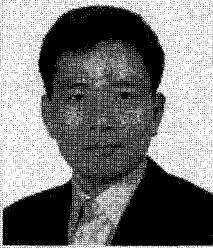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발전 거듭 고부가가치 필름 영업 주력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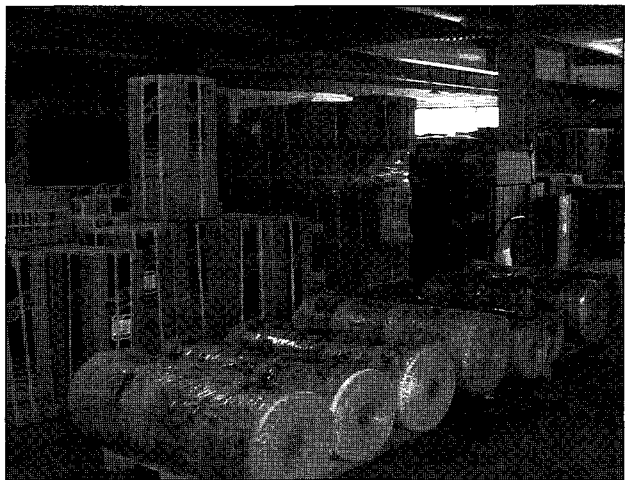
음 대 성
(주)대인포리 대표이사

기업을 운영하면서 임, 직원들간의 가족같은 분위기와 자신이 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식구들을 얻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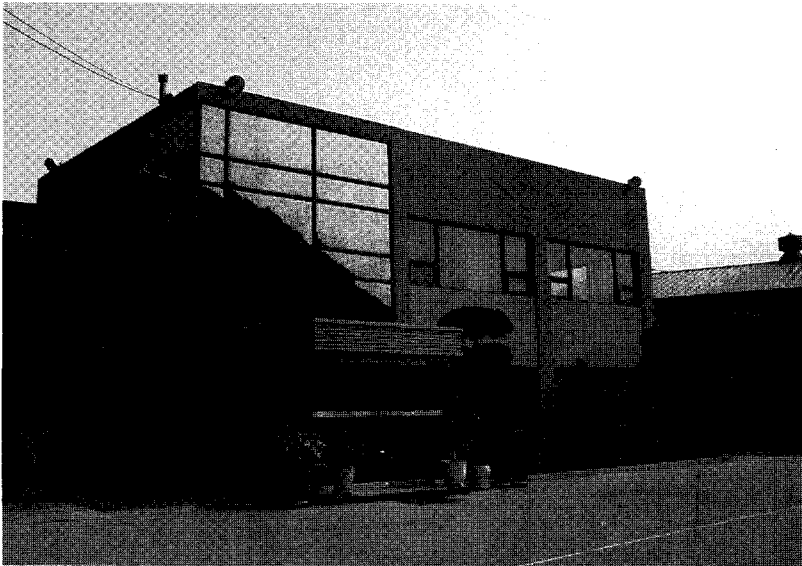
그만큼 경영자는 직원에 대한 존중, 애정이 밑바탕으로 깔려야 '보물' 같은 식구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남다른 직원사랑으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회사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대인포리(대표이사 음대성)를 찾았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에 위치한 (주)대인포리는 지난 96년 2월 대림산업(주)의 OPP 필름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주)코오롱의 나일론 및 PET 필름, 유상공업(주)의 CPP 필름 등을 판매, 타 대리점과는 차별화되게 다양한 품목의 필름을 취급하며 사업영역을 확대시키고



▲ (주)대인포리가 취급하는 필름류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에 위치한 (주)대인포리

있다.

특히 지난 해 2월 초고속 슬리터 3호기(NISHIMURA FZ-320B)를 증설하면서 동종업계 중 단연 돋보이는 시설로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

대인포리는 현재 대형슬리터 3대를 보유, 지난 해 외주 입가공을 포함해 약 8백여톤의 각종 필름을 가공했다.

남다른 영업 방식, 관리, 거래처에 대한 납기 시간 엄수 등 세박자를 두루 갖춘 대인포리는 이미 동종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대인포리는 창업 이후 꾸준한 시세확장과 매출증가로 지난 해 전체물량 3천톤에 약 80억원의 연간 매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와 같은 거듭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음대성 사장과 직원들의 노력이 남달랐을 터.

대인포리의 발전은 경영자와 직원들간의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와 가족같은 분위기가 작업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성과금을 전 직원에게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음대성 사장은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대학재학시절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전공한 음 사장은 직원들의 근무 편익을 위해 직접 입/출고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실로 놀라울 정도다.

전면적인 주 5일제 실시에 앞서 포장업계에서는 드물게 오래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해 왔으며 연말 특별 상여

Daeln

금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직원 복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일정액의 입학 축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걸맞게 대인포리 직원들은 동종업계를 대표하는 선

두두자임을 자부하며 올해 전체 매출물량 3천3백톤을 영업목표로 매출금액 1백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매출물량의 확대보다는 지역사회의 기초산업에 이바지 한다는 기업정신으로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음대성 사장은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해 온 원동력을 밑바탕으로 올해의 영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열기는 그 어느때 보다 뜨겁고 열의가 높다”고 말했다.

현재 필름업계는 2003년 말부터 밀려들어온 중국산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산 수입 필름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대인포리 역시 수입 필름과의 영업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대리점이기 때문에 수입 필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없어 대응책이 미비한 것이 안타깝다는 음대성 사장은 “대림산업(주), (주)코오롱, 유상공업(주)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일부 생산을 시작한 고부가가치의 특수 필름 등의 영업에 사력을 다할 것이며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를 구하고자 열린 마음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



▲ (주)대인포리 작업현장



▲ 출고 예정중인 (주)대인포리 제품들

했다.

열린 경영과 최상의 시설 및 근무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인포리는 까다로운 대기업의 대리점으로써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고객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며 험난한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

지난 달 대인포리는 보다 많은 제품에 대한 정보와 영업 기회를 얻고자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로 가입했다.

음대성 사장은 "현재 필름업계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수입 필름에 대한 대책 방안의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게끔 협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협회 회원사와의 협력을 통해 필름업계가 하루빨리 선진화를 이루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대인포리는 용인, 광주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래선을 전국단위로 영업영역을 확장시켜 제2의 도약을 위한 사업장 이전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필름

의 영업에 박차를 가하여 특수필름 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사무실 설립 단계부터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를 다스릴 만큼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돋보였던 음대성 사장. 놀라운 애사심과 회사에 대한 자신감으로 최상의 역량을 펼치고 있는 대인포리 가족들.

경영자와 직원이 하나가 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에 대인포리의 미래는 눈부시게 밝을 수밖에 없다. ☐

이한얼 기자